

CONTENTS

교재의 사용법	08P
1. 시의 행과 연	14P
2. 시의 화자	16P
3. 기본적인 문학 어휘	20P
4. 심상	30P
5. 문학의 비유	32P
6. 상징	36P
7. 역설과 반어 – 아이러니	44P
8. 현대시 읽기 연습	48P

9. 고전 문학에 반영된 유교 윤리	92P
10. 고전 시가의 클리셰	96P
11. 고전 소설의 클리셰	98P
12. 소설의 서술자	102P
13. 현대 소설의 흐름	108P

3. 기본적인 문학 어휘

수능 문학 공부를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의 어휘들이 있습니다. 주로 ‘수사법’(효과적·미적 표현을 위하여 문장과 언어를 꾸미는 방법)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예시들과 함께, 이러한 어휘들에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시다. 이번 챕터에서 다루는 내용만 잘 정리해도 수능 문학에 접근하기에는 충분할 것이에요. ‘역설-반어(아이러니)’, ‘은유-직유’와 같은 중요한 내용들은 다음 챕터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개념들을 단순히 외우려고만 들면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각 개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모르면 사전에서 찾아 보면서) 아래의 설명을 읽고 ‘납득’하세요. 저도 이걸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마지막엔 빈 노트 등에 여기 있는 개념들을 스스로 정리해보세요.

영탄법

감탄사(아아, 오호라 등), 감탄 호격 조사(-아, -야, -시여 등), 감탄형 종결어미(-로다, -노라, -구나, -ㄴ가 등)를 사용하여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홍진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 엇더흔고.
-속세에 사는 사람들아, 나의 삶이 어떠한가.

- 정극인, 「상춘곡」 -

아, 저들은 변경과 개혁을 마음대로 하고, 우리 임금을 폐하고 세움조차 저들 손에 달렸구나.

- 「한말 의병을 모집하는 격문」 -

문법적인 요소만 가지고도 판단이 가능한 수사법입니다. 이때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영탄’을 통해 화자가 ‘어떤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가입니다. 정극인의 「상춘곡」에서는 자기 삶에 대한 ‘만족감’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며, 「한말 의병을 모집하는 격문」에서는 ‘안타까움’이라는 감정을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의법

의문형 종결 어미(-가, -고, -까, -랴, -냐 등)를 사용하여 자신이 이미 아는 것을 물어보는 형식으로 내용을 강조하는 수사법입니다. ‘설의’는 ‘영탄’적 어조에 속하지만, ‘영탄’이라고 전부 ‘설의’는 아닙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 혹은 ‘감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영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모든 ‘영탄’이 물음의 형식을 띠지는 않으니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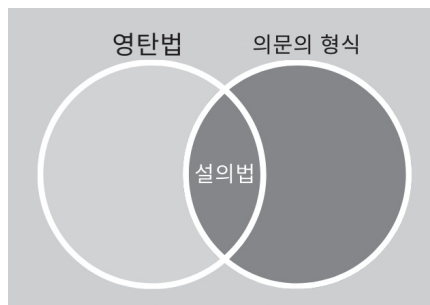
어와 동량재를 더리 하여 어이 할고.
-아아, 동량재를 저렇게 하여서 어찌 할까.

- 정철, 「어와 동량재를~」 -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 이형기, 「낙화」 -

이때 주의할 점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설의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해 보세요.



열거

내용적으로 비슷한 어구, 문맥상 이어지는, 또는 비슷한 감정을 드러내는 단어 등을 쭉 나열하는 것입니다. 간혹 두 개만 있어도 열거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수능에 그런 식으로 나온 적은 없으니 안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에는 개념어를 가지고 엄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애매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별 하나에 사랑과/별 하나에 쓸쓸함과

- 윤동주, 「별 헤는 밤」 -

‘별 하나에’라는 말 자체가 반복될 뿐 아니라, ‘별’이 담고 있는 다양한 감정을 쭉 나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 해설

학교를 떠났다가보다는
그 공터를 떠난 거라고 말하고 싶다
교사 뒤편 버려진 공터가
나를 숨쉬게 하고 견디게 했기에
얕은뱅이걸음으로 드나들며 열두 계절을 보냈다

‘열두 계절’은 3년이고, 아마 고등학교(또는 중학교)의 경험과 관련된 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 중에는 중·고등학생도 많겠지만, 저도 돌이켜보면 청소년기의 학창 시절은 답답하고 막막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화자는 종종 학교 뒤의 공터에 가서, 잠시간 마음을 환기하고 숨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나 봅니다. ‘공터’는 화자에게 휴식을 주는 공간이고, 1~2행을 통해 알 수 있듯 ‘학교’ 자체가 주는 의미보다도 더 특별한 공간으로 표현됩니다. 이 시에서 화자가 관찰하고, 생각했던 공간은 전부 이 공터예요.

뿌리지 않아도 돌아나는 싹을 바라보며
내가 뿌린 인간의 씨앗들을 떠올렸고

시골 근처나, 교외 쪽으로 가면 공터들이 많죠? 거기 보면 누가 씨를 뿌리거나 한 것도 아닌데 풀들이 엄청 길게 자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조금 주관이 들어간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얻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우리 스스로 씨앗을 뿌리듯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싹이 돌아나듯 생겨나는 경우가 있음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주관적인 해석처럼 느껴진다면 그냥 스스로 감상만 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들레 흰 솜털을 털어내며
가볍고도 촘촘한 목숨의 길을 생각했다
키를 넘는 수풀, 그 무성함이
소멸을 향한 빠른 걸음이 아닌가 싶어
젊음이 지나가는 속도가 와락 두려워지기도 했다

하얗게 피어난 민들레를 보면서 ‘목숨’이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했고, 빠르게 자라나는 수풀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금방 자라 버리는 것은 아닐까?’하며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다네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다니... 정말 시인은 시인인가 봅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튀어오르던 메뚜기들을
가늘게 뜬 눈으로 바라보던 가을날도,
웅웅거리며 묻고 있는 눈보라에게
쉽게 대답할 수 없던 겨울날도 다 지나갔다

가을에는 메뚜기를 관찰하고, 겨울에는 눈보라를 맞았습니다. 눈보라가 무언가를 묻고 있는 것처럼 화자는 느꼈다는데, 아마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고민과도 같은 물음이었을 것 같네요. 이런 추억이 있던 시간도 이제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가 떠나도 공터는 남으리라
생각했는데, 공터가 나와 함께 사라졌다
내가 짐을 꾸리는 동안
포크레인은 지나간 날들을 파내려 갔다

화자의 학창 시절이 담겨 있는 공터는 꼭 존재하리라 생각했지만, 졸업 이후 포크레인으로 공사가 진행되며 이 공터가 사라집니다. ‘포크레인이 공터를 뚫다’는 얘기를 ‘포크레인은 지나간 날들을 파내려 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역시 시적인 언어의 사용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터는 화자에게 지난 청소년기의 나날들을 상징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 의미가 훨씬 와닿죠?

구덩이가 깊어질수록
그 옆에는 작은 산이 하나 자라났다
패이는 것과 쌓이는 것,
그러나 흙은 사라지지 않는다
티끌과도 같은 날들이 먹구름으로 밀려온다

그러나 포크레인이 공터의 흙을 파면 팔수록, 그 옆에는 흙이 쌓여서 산이 생겨납니다. 구덩이가 패이면 그만큼 다른 곳에는 흙이 쌓이게 됩니다. 상식적인 얘기죠. 흙이 단지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 화자가 공터에서 보냈던 학창 생활의 기억도 영영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시도 결국 ‘글’입니다. 아름답게 쓰인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 시 읽기의 기본입니다. 계속 연습해봅시다.

9. 고전 문학에 반영된 유교 윤리

동양의 문학에서는 어렵지 않게 유교적인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능 고전 문학도 마찬가지이며, 몇몇 지문, 문제는 이러한 유교 윤리를 느낌으로라도 알고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chapter에서는 상식으로 알아둘 만한 유교 윤리의 내용을 정리해 볼 것입니다.

충과 효

기본적으로 유교에서 강조되는 개념은 ‘충’과 ‘효’입니다. 이를 일컬어 ‘충효’라고 묶어 부르기도 합니다.

생평(生平)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평생 원하는 것이 충과 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 | 나 다르리야

-이 두 일(충과 효)를 안 하면 짐승이랑 다를 것이 있겠느냐?

...

- 권호문, 「한거십팔곡」 -

‘충’은 임금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효’는 부모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가리킵니다. ‘충’은 민주주의 사회에는 별로 걸맞지 않은 구닥다리 개념이지만, ‘효’는 지금도 일반적인 도덕 규범으로 통용되고 있죠.

...

강산이 도타 혼들 내 분(分)으로 누얼느냐

-강산이 좋다고 한들, 내 분수로 강산에 지내는 것이겠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임금님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도다.

아무리 갑고자 하야도 히을 일이 업세라

-아무리 (은혜를) 갑고자 하여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라.

- 윤선도, 「만흥」 -

고전 시가 중간 중간에는 뜬금없이 임금의 은혜를 찬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의 양반들에게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임금님 덕분’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